

# 민주-국민의당 '호남 SOC 홀대론' 공방

“호남, 정부 삭감폭의 3배”  
국민의당 연일 文정부 비판

“이간질 시키는 정치공세”  
민주 “혹세무민” 강력 반발

이른바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지만 호남에서는 가장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와 호남지역 의원들이 연일 호남지역 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호남 홀대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주권과 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알뜰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의 지적(경주일보 6일자 4면 보도)을 들어 “호남은 예산을 신청해도 감소시키고 영남은 신청하지 않아도 3053억원을 알아서 편성해 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엔 인사폭탄, 영남엔 예산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 예산은 절대 묵과하지도 통과될 수도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내년도 SOC 예산(정부안)은 전년 대비 20%가 삭감된 17조7000억원인데 광주·전남 SOC 예산은 전년도 1조4322억원 대비 24% 삭감된 1조91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 SOC 예산은 전년도 1조 1307억원 대비 16% 삭감된 9516억원이지만 광주 SOC 예산은 전년도 3015억원 대비 54% 삭감된 1395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광주 SOC 예산은 정부 SOC(예산) 삭감 폭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호남 SOC 예산 삭감 폭이 전체 SOC(예산) 삭감 폭보다 낫다’, ‘국가 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등 문재인 정부가 거는 지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역 SOC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SOC 예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광주·전남의 SOC(예산)도 함께 감소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그들 스스로 과거 보수정권 9년의 지역 홀대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당의 공격

에 대해 “지역주의 적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호남 SOC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홀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지지를 떨어뜨려 보겠다는 알뜰한 정치공세고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철도 등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약속 없이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호남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축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요구예산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산정해 요구한 것이

기 때문에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또다시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지역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기재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호남 예산을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면서 이를 ‘신(新)호남 홀대 프레임’으로 지칭한 뒤 “정부 SOC 예산은 23%가 준 반면 호남 SOC 예산은 16%가 삭감됐는데 호남 예산 홀대했다고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호남 지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주호영 “우리도 핵 보복능력 갖춰야”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한 뒤 북핵 대책과 관련,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가 되면 핵 공유가 되는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고

도·중고도·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가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야대 국회 환경에서 진정한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김풍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정가라운지

### 박주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면담... 교류 논의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 중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6일(현지시간) 일함 알리예프(Illham Aliyev)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을 예방해 양국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 부의장은 알리예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아제르바이잔의 자원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호혜적 경제관계를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현지 교민과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알리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내 안보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 주승용 ‘10월 2일 노인의 날’ 국가공휴일법 발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이 7일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쉬는 날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노인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노인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기 위해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677만 5000명으로 15세 미만 청소년 인구 676만 8000명 추월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틀간 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김경진 ‘실시간 여권 진위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7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간 여권 진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을 ‘실명확인 증표’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은행(키오뱅크, 케이뱅크)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여권 이미지만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 개설의 길이 열리면서 명

의도유이나 금융사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여권의 위·변조 적발은 수사 기관의 기술발전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여 건이 넘는다고”면서 “외교부는 여권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계란 파동·갑질 대책... 경계없는 행보

###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 10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이 총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종량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총리는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내각의 ‘조정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약속대로 이 총리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총리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책임총리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취임 직후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터지자 ‘컨트롤 타워’가 자신임을 분명히 밝혔고, 가뭄과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또 군산조선소 중단 대책,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의, 살충제 계란파동 수습, 공공병제도 폐지를 포함한 갑질 대책과 생리대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대책 마련도 주도했다.

아울러 이 총리의 ‘격의 없는’ 소통 행보 때문에 네티즌들로부터 ‘여니(이낙연)’, ‘이따옴’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총리의 페이스북페이지 팔로워는 3만 2000명으로, 역대 총리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與, 국가개혁·민생 챙기기

### 국정과제 TF팀 입법과제 점검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태스크포스팀)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이행 전략과 정기국회에서의 중점 추진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북한 6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 속에서도 국가 개혁과 민생 챙기기의 동력은 계속 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급인 인사 후속 대책, 탈원전, 대입제도 개선, 통신비 인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제, 권력기관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10대 핵심과제로 추려 주제별 TF를 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추미애 대

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각 TF 단장 및 간사들이 참석해 이후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는 적시에 성과를 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고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북한 핵 실험으로 안보위기가 높아지면서 침체에 빠진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정정이 혼연일체가 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법계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고, 박광온 의원은 “지대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즉시임대가능★

직매 010-7384-7800

## 영광 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금남로 충장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3) 북구 삼각동 상가건물 (4층)  
병원, 요양병원 적합  
감정가 189억 → 최저가 85억
- 4) 상무지구 치평동 지하상가 (교회, 기타적합)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5) 상무지구 치평동 4층 상가코너 (병원)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0억5천
-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7) 충남 홍성 상가건물 (주유소, 모텔, 식당종합건물)  
감정가 55억 → 최저가 13억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 월요일 개강  
기초부터 실전까지  
062-382-5500